

광주시·북구, 5년간 학대 몰랐나

학대 제보 받고도 파악 못하고 복지시설 이사장 능력 직무 배제

연간 두차례 점검, 현장 조사·장애인 면담도 없이 서류 검토만

‘도가니 피해자 또 학대’ 논란 확산

“하나같이 서류만 넘겨보고 갔어요. 광주시청, 북구청 공무원 중 한 명이라도 눈을 보며 물어본 적 없었어요.”

광주의 장애인시설인 가교행복빌라 이사장과 시설장이 30명의 여성 장애인을 5년간 지속적으로 학대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시와 북구청의 무관심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법인을 상대로는 2년에 1차례, 시설에는 상하반기 연 2차례 현장조사 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 조사는 장애인 면담 없이 서류검토 등 형식적으로 반복했다는 내부 증언이 22일 나오면 서다.

장애인들이 영화와 소설 ‘도가니’로 알려진 복지법인 산하시설에서 1차 피해를 겪은 뒤 문제의 시설로 옮겨져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지만 광주시가 무려 5년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데다, 피해 접수

후 광주시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보면 광주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목소리로 나온다.

곰팡이 핀 빵을 간식으로, 강제로 붙잡아 머리 자르기, 서랍장으로 머리와 허리 때리기, 반말로 수용 장애인 부르며 욕하기, 추운 겨울 난방 중지, 동상·탈진 환자 발생. 이는 최근 5년간 가교행복빌라에서 자행된 학대의 기록이다.

중복장애(정각·지적장애)를 포함 20~50대 여성 장애인 일부는 또렷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할 능력을 갖췄지만, “인화원에서 온 너희 여기서 쫓겨나면 길바닥에 나왔게 된다”는 이사장, 시설장의 협박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관련법에 따라 최소 연 2차례 이상 현장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광주시와 북구가 예산 사용 내역 등 서류 점검 위주로 장애인 시설을 관리감독하면서,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 등 2명의 만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장애인 시설 법인 계좌로만 연 9간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검토할 뿐 공무원 누구도 장애인들의 생활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북구는 공익제보자들이 지난해 9월 피해 사실을 증거하는 방대한 자료를 인권단체에 제보한 지 3개월이 흐른 12월5일 해당 시설 점검에 나설 당시에도 행복빌라에서 학대가 이뤄진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 경우 올 2월 피해 사실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하면서도 이를 공표하는 것은 꺼렸지만,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였던 광주 인화학교(건물)가 장애인 인권복지타운으로 변신한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가해자로 지목돼 상당부분 혐의가 뚜렷해진 이사장 이모(여·50)씨, 시설장 마모(여·48)씨를 지난 2월 말에서야 직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점 역시 섬세하지 못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교행복빌라 관련 공익제보자로 나선 한 직원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요. 2015년 2월 12일 같이 근무했던 직원 선생님이 울며 전화를 했어요. ‘이사장님이 40대 여성 장애인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직원 둘을 붙여 잡게 하고는 서랍장으로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린 것을 봤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했어요”라며 “그때부터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증거 수집해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라고 말했다.

광주일보를 가교행복빌라 이사장 등 시설 책임자들의 해명을 들으려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시설 책임자들이 광주시 행정조직(직무배제 등)에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호·전은재 기자 khh@



중복장애인을 포함 여성 장애인 30여 명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광주시 북구 본촌동의 가교행복빌라의 모습.

보조금 빼돌려 보톡스 맞은 대표·시설장

가교행복빌라 장애인 연금·후원금 등 한해 10억여원 횡령

중복장애인을 포함해 30명의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가교행복빌라 대표이사과 시설장이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소탕을 하고 보톡스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장애인시설인 ‘가교행복빌라’를 운영하는 시설대표 이모(여·50)씨는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주·부식 재료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또 후원금을 개인적인 축·조의금이나 식비로 사용했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을 가로채 본인의 의류, 골프화 등을 구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목도리, 점퍼 등도 마음대로 구입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모씨는 시설에 출근하는 날이면 시설장 마모(여·48)씨를 비롯한 시설 직원 일부와 함께 근무시간에 주름리프팅, 보톡스를 시술받으러 가기도 했다. 장애인만 남겨둔 채 시설을 비운 것이다. 이 밖에도 이씨는 자신이 집에서 입던 현 옷과 신발을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팔았다.

광주시는 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1년 예산이 9억 2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시에서 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한 달에 약 20만 원씩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까지 감안하면 1년에 9억9200만 원을 가로챘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설대표가 시설이 설립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가로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에서 1년에 2번 실시하는 시설 관리·점검 때에도 들켜지 않을 만큼 예산을 조금씩 가로채 최근까지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표와 시설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는커녕 가교행복빌라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을 저질러 왔다”며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사회복지법인인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난 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주 광역위생매립장 인근 지석천에서 죽은채 떠오른 물고기. 대촌동(양과동) 주민들은 “죽은 물고기가 마대(포대) 10포를 차고도 넘쳤다. 수만마리가 일시에 떼죽음을 당했다”고 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양과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물고기 떼죽음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양과동(대촌동)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유출된 침출수(浸出水)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집단폐사했다. 대촌 주민들은 “침출수가 얼마나 독했으면,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광주시와 대촌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남구 양과동을 흐르는 지석천에서 붕어, 피라미 등 물고기 수백 마리가 지난 20일 죽은 채 떠오른 모습이 주민들에게 관찰됐다.

주민 신고와 항의를 받은 광주시가 조사한 결과, 폐사 원인은 인근에 있던 광주시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유출된 침출수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

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땅에 묻고 흙으로 덮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한 고농도 오염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물고기 집단 폐사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름 50mm의 하수관이 이물질로 막히면서 침출수가 인근 우수관으로 모여들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정확한 침출수 양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얼마나 독했으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겠느냐. 치어를 포함하면 수만마리가 오염수로 죽은 것”이라면서 “주변 농작물에는 이상 없는지, 지하수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봄특선 벚꽃구경~ 무안에서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관광·휴양·온천·체험·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일본여행/국내·제주여행/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joytour.kr

항공왕복 북큐슈 2박3일 “봄” 상품 [매주 금요일 출발/3월 31일~6월 4일]

〈북큐슈 정통〉

벳부·유후인·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579,000원~

★한정특가★

3/31, 4/14 북큐슈 여행

1인 499,000원~

〈아마구치 정통〉

아마구치·하기·시모노세키·기타큐슈

1인 799,000원~

〈우레시노 정통〉

우레시노·가라츠·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799,000원~

〈골프상품〉

기타큐슈 골프

1인 999,000원~

※

골프상품 인센, 단독은 문의바랍니다.

※ 4/28, 4/30, 5/3, 5/5는 골든위크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공/선박 편도 북큐슈 “봄” 상품 [매주 일·화·수요일 출발/4월 2일~6월 6일]

〈일요일 출발〉

3박4일 항공 + 선박 (선착순 한정 30명)

1인 399,000원~

〈화요일 출발〉

3박4일 선박 + 항공

1인 499,000원~

〈수요일 출발〉

2박3일 선박 + 항공

1인 399,000원~

〈올레길〉

산악회를 위한 큐슈올레길 2박3일

매주 수요일 출발 1인 399,000원~

〈항공/선박〉

후쿠오카 골프 36H 3박4일

1인 799,000원~

무안 → 다낭 전세기 “봄” 상품 [매주 수·토요일 출발/4월 19일~6월 24일]

1. 항공 + 에어텔

1인 749,000원~

2. 다낭·호이안·후에

1인 799,000원~

3. 다낭·후에·밤마·호이안트레킹

1인 849,000원~

항공·선박 왕복 제주도 “봄” 상품 [매일 출발/3월 24일~7월 20일]

〈광주〉

제주도 웰빙여행

1인 299,000원~

〈목포〉

선박왕복 제주도 여행

1인 189,000원~

※

제주상품은 석식 2회,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

◆공동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경비없음(단,기차/기타교통사료,선박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오늘의 날씨														
일교차 커요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린뒤 맑음	6/16	보	성	흐린뒤 맑음	3/14								
목포	흐린뒤 맑음	4/13	순	천	흐린뒤 맑음	6/16								
여수	흐린뒤 맑음	7/14	영	광	흐린뒤 맑음	2/13								
나주	흐린뒤 맑음	3/15	진	도	흐린뒤 맑음	5/11								
완도	흐린뒤 맑음	5/15	전	주	흐린뒤 맑음	3/15								
구례	흐린뒤 맑음	2/15	군	산	흐린뒤 맑음	3/14								
강진	흐린뒤 맑음	4/15	남	원	흐린뒤 맑음	3/15								
해남	흐린뒤 맑음	3/14	흑	산	도	5/11								
장성	흐린뒤 맑음	3/15												
◇바다 날씨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오후		관심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식중독	보통	자외선					
			북~북동	0.5~1.0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피부질환	낮음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남해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3:00		10:07									
여수			16:42		22:22									
			12:35		06:16									
			--:--		18:10									
◇주간 날씨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2/12	5/12	5/14	3/12	4/15	3/16	4/17								